

## 배심원 불루

강치범

배심원 호출장이 나왔다. 배심원 봉사가 시민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리 반갑지는 않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이다. 배심원 임무는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몇 주일 혹은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나는 다운타운에 있는 법원에 출석했다. 대기실은 불려온 삼백여 명으로 초만원이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자기 이름이 불리어지지 않으면 그날로 배심원 임무는 다하는 것이다. 전례로 보아 점심시간만 넘기면 그럴 확률이 높다. 점심시간 십 분을 남겨 놓고 담당자는 내 이름을 불렀다. 일일 배심원의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여태



USC치과대학 졸업. 창조문학, 미주문학 수필 등단. 미주한국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회원.

껏 호출장을 세 번 받았지만 호명되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작한 지 두 해밖에 되지 않은 새컨드 오피스가 마음에 걸렸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오피스를 기약 없이 비워 둔다면 치명적인 결과가 올지도 모른다. 지나친 걱정 탓인가 아니면 졸지에 뒤바뀐 상황 때문인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재판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현실감 없는 환상 여행처럼 느껴졌다.

나와 함께 호명된 사람은 모두 서른여섯 명이다. 안내자를 따라 우리는 함께 재판실로 향했다. 나는 지금의 내 얼굴 표정을 마음속에 그려 보았다. 아마도 걱정으로 경직된 안면과 긴장으로 앙다문 입술이 남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것 같았다. 속은 타도 겉이 쿨하게 보일 방법은 없을까. 입을 약간 벌리고 바보 같은 표정을 지어 보면 얼굴이 좀 여유롭게 보이려나.

지정된 방에 도착하니 벌써 재판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판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변호사와 피고는 왼쪽에, 검사는 오른쪽에 서 있다. 중앙에는 서기 두 명이 서로 마주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그들의 임무는 재판 중 오고가는 말을 기록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사 오십 대의 흑인 남자이고, 피고는 흑인 청년이다. 검사는 예상보다 좀 색다른 모습이다. 검은 생머리가 어깨 너머로 흘러내리고 피부가 고운 백인 여성이다. 패션쇼에 출연해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 팔등신 미인이다. 그녀에게는 부드럽고 우아한 인생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왜 그녀는 딱딱하고 험난한 검사의 길을 택했을까. 무거운 법정 분위기가 그녀로 인해 부드럽게 느껴졌다. 내가 속해 있는 서른여섯 명 중 열다섯 명이 배심원으로 선정될 것이다. 열두 명은 정석이고 세 명은 예비라고 한다. 우리들 중 반은 배심원 석으로 가서 먼저 자격 심사를 받고, 나머지 반은 방청석에 앉아 심사 과정을 지켜보았

다. 나도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다. 미리 나누어 준 설문지를 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배심원 선정이 시작되었다.

이번 재판은 마약에 관련된 것이라고 판사가 미리 알려 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마약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다. 심사받는 자들은 그들의 친구나 친척이 관련된 것까지도 털어 놓았다. 그런 경험은 이번 사건에 편견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얘기 거리는 경찰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례이다. 재판이 시작되면 경찰이 증인으로 나올 것인데 그 증인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개인 신상을 호소했다. 한 학생은 시험 날짜가 겹친다 했고, 한 신사는 이사 날짜가 겹친다고 했다.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두 여자도 있었다. 무슨 사연이기에 판사 앞에 다가가 하소연 하다가 울어 버리고 말았을까. 모든 얘기의 결론은 한 가지로 모아졌다. 다들 자기는 이번 사건의 배심원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배심원단에서 빠져 나가려고 마치 미꾸라지 처럼 굴 때, 드물긴 해도 월급이 보장된 직장인이나 은퇴한 사람은 잉어나 붕어처럼 여유로워 보였다. 배심원에게 지급되는 일당은 십오 불이다. 게다가 재판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임무를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시민 정신이 부러울 뿐이다. 결국 결국 사유가 인정된 세 명이 퇴장당하고 열다섯 명만 남았다. 원하는 숫자의 배심원이 구성된 것이다. 방청석에 있는 우리까지 심사해야 할 필요가 없을 듯 싶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다. 검사가 두 사람의 이름을 불러 퇴장시키니 변호사도 질세라 두 사람을 탈락시킨다. 배심원 구성이 끝난 후에라도 검사와 변호사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유 불문하고 퇴장시킬 수 있는 모양이다. 배심원들의 평결은 만장

일치로만 가능하다. 검사나 변호사가 각자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승리의 꽃밭에 잡초를 남겨두려 하겠는가. 배심원 구성이 다 끝나기도 전에 퇴근 시간이 되었다.

다음날 모두가 다시 모여야 한다. 간밤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생각해 보았다. 마약이나 경찰에 관한 얘기가 있으면 좋으려만 그렇지할 못하니,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영어 부족과 오피스 사정이다. 아내는 영어에 승부를 걸어 보라고 권했다. 나에게서 그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나는 본래 영어 발음이 시원찮으니 조금만 더 엉터리로 발음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하되 듣는 사람이 답답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마음이 오죽 다급하면 그런 충고까지 할까 만은 나는 판사 앞에서 차마 그럴 자신이 없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솔직하게 늦깎이 이민자로서 영어에 대한 어려움과 오피스 사정을 얘기했다. 판사는 내 얘기에 대한 답변을 질문으로 대신했다. 당신은 여기서 대학을 졸업했는가? 대학에서는 영어로 공부 했는가 한국말로 공부했는가? 치과의사 면허 시험은 보았는가? 영어로 보았는가 한국말로 보았는가? 당신은 자기를 찾는 급한 환자를 따돌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라면 의사들은 평생 배심원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내가 판사 앞에서 너무 궁상을 떨었나 싶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런 수치심은 시민의 의무를 소홀히 여긴 죄 값으로 여겨야 할까보다. 혹시나 하는 기대마저 사라져 버리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 졌다. 완전히 포기해 버리니 걱정도 사라지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배포마저 생겨났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배심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

의 잔치와 중년을 넘긴 여인의 흐느낌과 잡초 뽑기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결국에는 배심원 후보 숫자가 모자라 새롭게 서른여섯 명이 불러와 방청석에 대기 중이다. 마약에 관련 된 피고인 한 사람의 진실을 밝혀 보려고 배심원 후보 칠십두 명이 동원된 셈이다. 배심원 석에 자리가 비면 방청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워가며 심사는 계속되었다. 드디어 검사와 변호사가 모두 함께 만족할 만한 배심원단이 구성되었다. 한 사람이 더 있는 열여섯 명이 최종적으로 남았다. 마지막 기회에 변호사는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놀랐다. 그리고 고마웠다. 꽃으로 여기고 여태껏 두었는데 다시 보니 내가 잡초였던 모양이다. 속으로는 떨 듯이 기뻐지만, 겉으로는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나는 배심원 석을 빠져 나왔다. 배심원 탈락을 너무 섭섭히 여기지 마시오.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오. 배심원 석을 떠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듣는 판사의 위로 말이다. 떠나는 참에 나도 한마디 하고 싶었다. 죄인이시여, 알고 보니 내가 당신의 봉이로소이다.

## 여보, 눈물 가지고 가야 해!

김우영

벌써 몇 년이 흘렀다. 그동안 내 양쪽 눈에 눈물이 많이 끼거나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내려서 늘 눈앞이 희미해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나 책을 읽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평소에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성격 탓에 불편을 감수하고 오랫동안 버텨보았지만, 갈수록 더 심해져서 닳은 길을 찾아가려면 길 표지판의 글자가 보이질 않아, 옆에 탄 아내에게 물어보기 일쑤이고, 또 잘못 지나치기 일쑤여서 아내의 강권에 못 이겨 안과에 갔던 적이 있다.

무슨 보물처럼 안고 살아가는 당뇨병과 심장병을 안고 있는 주제에 일 년에 한번씩은 눈을 정기검진받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의사



미주 중앙일보 수필 입상, 해외문학 수필 신인상. 저서로는 『생명과 자유의 만남을 위하여』(1995년), 『의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2006년),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자유』(2006년). 현재는 월간 《생명과 자유》(1996년 창간) 편집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에게 잘 가지 않는지라 아내가 일방적으로 검진 일자를 잡아 놓았고, 나는 그저 아내를 따라가서 의사 앞에 앉아 있게 되었다. 내 진찰기록을 본 안과의사가 몹시 나무란다. “내과의사가 안과에 가보라고 했을 텐데 왜 오지 않았느냐”며 내 담당 의사에게까지 불만을 토로했다. 물론 자기를 찾아오지 않은 나에게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내 눈만 잘 보아주기를 바랄 뿐, 일일이 그 의사에게 대꾸할 생각이 없어 잠자코 있었다. 그저 내 눈만 그에게 맡겨놓았다고 할까?

천만 다행이다. 당뇨와 관련돼 눈에 이상이 생긴 것도 없고, 백내장은 조금 있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니 괜찮다는 것이다. 사실은 나도 내 눈 상태가 특별히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다. 하지만, 계속해 눈물이 많이 끼어 늘 앞이 희미해지는 건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을 알고 고침을 받고 싶어 안과에 간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의사의 말로는 눈이 건조해져서 그렇단다. 눈물이 많이 끼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데 눈이 건조하다니 이해되지 않았다. 의사도 ‘이해하기 힘들 테지만’,이란 말을 덧붙이며 눈이 건조해서 눈물이 나는 것이니 인조눈물 한통을 넣어보라고 권했다.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다시 안과에 오라면서 인조눈물 한 통을 선심 쓰듯 내게 주었다. 아내가 그것을 챙겨 가지고 왔다.

나는 사실 여러가지 약을 먹고 있지만, 무슨 약을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른다. 아내가 챙겨주는 대로 아침저녁으로 두 차례 씹 입에 넣어 삼킬 뿐이다. 하기가 챙겨주어도 잘 먹지 않으니 늘 편잔을 받지만, 그 버릇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 아내가 나보다는 오래 살 것이니 내가 약을 먹지 않아서 잘못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아내에게 모두 책임을 맡겨놓고 나는 항상 무사태평이다.

나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에게, “여보, 눈물 가지고 가야

해”라고 말했다. 아내가 내 눈에 넣을 인조눈물을 받아 왔으니 당연한 요구였다. 운전할 때 또 눈이 희미해지면 차를 세워놓고라도 그 눈물을 눈에 넣기 위해서, “눈물 가지고 가야 해”라고 말했지만, 눈물을 따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려서 다시 되새김질해 보게 되었다. 어쨌든 아내는 한동안 내 대신 그 인조눈물을 가지고 다녀야 했다. 그동안 나와 살아오면서 아내는 나 때문에 흘린 눈물도 많았을 텐데 노년에 내 대신 인조눈물까지 가지고 다녀야 한다니 내가 너무 했나 싶기도 하다.

현데 그 얻어온 인조눈물을 다 사용했어도 내 눈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다시 안과에 갔다. 허나 별 이상이 없다는 거였다. 안경의 도수가 좀 약하니 안경을 바꾸면 좀 나아질 거라며 안경 처방을 해주었지만, 내가 지금 끼고 있는 안경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경을 바꾼다고 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안경 맞추는 걸 미루고 있다.

눈이 건조해져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소위 노안이라는 자연 현상일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고기잡이 노인은 바다에서 강렬한 태양 빛에 눈이 너무 많이 노출돼 눈이 나빠진 걸로 알고 있다. 태양 빛에 눈이 건조해지면서 눈이 나빠지는 것이라면 내 눈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질 않은가? 그 샌디애고란 노인이 “일평생 아침 해가 내 눈을 상하게 했거든, 그러나 내 눈은 아직 끄떡없다. 저녁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다. 저녁 햇빛이 더 강하다. 그러나 아침 해는 눈이 아프다”라고 독백하는 걸 보거나, 그 노인과 함께 다섯 살 때부터 고기잡이에 따라다녔던 마놀린이란 소년이 지금 함께 일하는 다른 어부의 눈이 아주 나쁘다고 말하는 걸 보아서도 어부들은 뜨거운 햇빛 때문에 눈이 상한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나도 좀처럼 색안경을 끼지 않고 오랫동안 운전하는 관계로 강렬한 태양 빛에 눈이 건조해진 것이 분명해 보인



다. 자꾸만 눈물이 끼면서 눈이 침침해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현재로선 달리 뽀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헌데 노인이 되면 그동안 흘린 눈물이 많았기에 눈이 건조해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온갖 산전수전 다 겪다 보면 결국 눈물샘이 말라버리지 않겠는가 말이다. 세상에서 오래 산 사람일수록 그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게 분명하고, 따라서 고생스럽게 산 사람일수록 눈이 건조해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나 싶다. 한국의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분명히 눈물을 더 많이 흘린 세대라는 걸 부정할 수 없을 터. 물론 어떤 이들은 세상의 슬픔과는 별로 관계가 없이 행복하게 살아 눈물 흘릴 일들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눈물이 더 많았을 것이 아닌가? 기쁠 때 흐르는 눈물과 슬플 때 흐르는 눈물의 종류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건조해서 나오는 눈물은 보통 흐르는 눈물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건 분명하다. 더 진하고 끈끈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인조눈물을 넣으라는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해보았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다가 눈이 희미해지면 종종 수돗물로 눈을 씻어내기도 하는데 눈의 상태가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걸 보면 아마도 수돗물과 눈물은 분명히 다른 모양이다. 수돗물과 눈물이 같다면 구태여 인조눈물을 팔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내가 아내에게 ‘여보, 눈물 가지고 가야 해’라고 말한 그날, 나는 차안에서 이라크의 폭도들에게 납치됐던 한국의 한 젊은이가 참수당했다는 슬픈 뉴스를 들었다. 내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한데 갑자기 차 앞이 오히려 잘 보였다. 무슨 그런 조화가 있을까. 눈물이 나면 눈이 맑아져 앞이 잘 보인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세상을 좀더 밝고 환하게 보고 싶으면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눈물을 혼자서 많이 흘린 것처럼 자랑스레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눈물을 많이 흘리자고 권유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슬플 때 흐르는 눈물은 인조눈물과는 다른 게 분명할 뿐만 아니라, 눈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마디 해본 것뿐이다. 분명히 그 슬픔의 눈물이 내 눈을 한동안 맑게 해준 것 같았다. 그 눈물이 혹시 마음까지 맑게 해줄지도 모르기에 한 마디 해본 것이다.

헌데 나이가 많아지면 눈물이 적어지고 눈이 건조해져서 인조눈물이라도 필요하게 되는 건 결국 육체적인 이유이지만, 눈물은 꼭 육체적인 반응에 따라 나오는 것만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슬픈 소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라크 전선에서 날마다 차량 폭탄테러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보면서 안타깝기는 해도 한국 젊은이의 경우처럼 내 눈에서 늘 눈물이 나오지는 않듯이 눈물이 눈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가슴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눈물은 눈물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다. 내 눈이 자꾸 건조해지는 건 노안이라서 눈물샘이 막힌 것이 아니라, 가슴 샘이 닫혔기 때문일까? 어쨌서 나이 많아지면 가슴 샘이 닫히는 것일까? 오랫동안 계속되는 비극에 길들여지면 가슴이 둔감해지기 때문일 게다. 가슴이 움직여서 눈물샘을 자극하는 게 옳다면, 내 눈은 갈수록 더욱 더 건조해질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져서 눈물샘이 말라버린다고 해도 가슴을 조금만 넓고 깊게 열어놓고 산다면,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알맞게 눈물이 흘러나올 것이고, 그 흐르는 눈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눈물을 인조눈물처럼 다른 곳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슴에

담아둔 눈물은 어디서든 필요할 때마다 가슴만 열어주면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게 행복이 아닐는지? 정말 가슴 샘이 말라버린 것 같은 사람이라도 인조눈물이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눈을 벌리고 몇 방울이라도 넣어보면 언젠가는 가슴에 눈물이 고이고, 또 흘러나올 날도 있지 않겠는가? 마치 물 펌프질하기 전에 물을 조금 부어 넣어야 하듯이 인조눈물이 내 눈에 별다른 효과가 없더라도 내 가슴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데는 도움을 주고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 미국 촌사람 금강산에 가다

김태영

금강산에 다녀왔다. 10년 만에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그 곳에 꼭 다녀오겠다고 작정했었다. 이유는 87세 된 어머니께 마지막 선물이라 했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아우성 치는 그 때문이었다. 그는 소리쳤다. 가라. 가서 보아라. 분출되지 않은 용암 마냥 평생을 내 안에서 불통거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니 분명히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동생들은 말했다. 이북에 지푸라기만한 인연도 없는 노모를 모시고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뭐냐고. 차라리 그 돈을 천원짜리로 바꿔 어머니 염낭을 채워 놓으라고. 하지만 금지된 구역에 대한 간절한 갈구



전남 출생. 『초록반 아이들』(김영사), 『꿈꾸는 황금사자별』(현암사), 『나도 별이 될게요』(현암사), 『철학 동화시리즈』(고려원), 『초롱이』(샘터사), 『아기씨 꽃씨』(현암사) 등을 썼음.

가 변하여 반쪽을 찾아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소원으로 평생 간직하고 살아온 나로서는 그들을 이해하기조차 어려웠다.

아무튼, 추석이 지나자 북한행 관광버스에 몸을 날렸다. 놀노란 시월 햇살이 은빛으로 빛나는 물비늘을 가지고 노는 한강의 다리를 건넜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지방을 지나니 바로 강원도 산길로 접어들었다. 가을이 여름 내내 감추어 두었던 비밀의 손길로 산촌 마을을 쓰다듬고 있었다. 논마다 노란 벼이삭이 펴 터져 황금비로 쏟아져 내릴 듯 풍성하고 속이 꽉 찬 배추포기들이 밭두렁까지 덮었다. 줄지어 늘어선 허수아비 위를 나르는 고추 잠자리떼, 전깃줄에 앉아 오션지 위의 음표 마냥 제각각 재잘대고 있는 참새들의 정겨운 모습, 어느 것 하나 잊을 수 없다. 어쩌면 한국의 산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을 풍경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산과 강이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자라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애잔하기까지한 시골 풍경에 가슴 저미도록 매료되는 것이다. 차창 밖에 낮달이 따라오고 있었다. 느닷없이 어릴 적 술래잡기할 때 출랑대던 하얀 삽살개 생각이 난다.

내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넓은 것, 큰 것을 원없이 본다. 야기 자기하진 않아도 거대함에 놀란다. 가슴 뿌듯하다. 땅 좁은 나라 사랑이라 그런지 속이 다 시원하다. 그뿐이다. 자연과 맺었던 자잘한 추억들이 기억 속에 켜켜이 숨어 있다가 잎새 하나가 흔들려도 하르르 한숨 쉬며 풀려나와 내 눈길 닿는 곳에 가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애기거리가 그곳엔 없기 때문인가 보다.

감자떡, 양양 찢빵, 찰옥수수, 한글 간판들이 무척 반갑다. 북쪽으로 갈수록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빌딩 공사랑 토지매매 광고가 장미빛 미래를 보는 듯하여 즐거웠다. 나는 한국에 오기를 참 잘 했다고 나를 칭찬해 준다. 행복해? 매 순간 행복을 저장하는 거 잊지 마라. 나를 다독여 주며 빙긋 웃지만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옆구리가

아린다.

집결지인 아산에 도착했다. 아산은 고 정주영씨의 고향이라 했다. 사전지식 없이 갔던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관광버스에 깜짝 놀랐다. 아리한 페인트 냄새가 날 것 같은 세련된 디자인의 새차들이 출발선에 선 경기마처럼 줄 맞춰 서 있었다.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의 무리들, 그들은 무슨 지시를 받은 것일까. 한결같이 검은 색 바지의 등산복 차림에 배낭을 메고 있었다. 이천 명이 넘는 관광객이 대지에 나오는 때뚜기때 마냥 삼시간에 비빔밥을 먹어 치우고는 동해선 도로 남북 출입 사무소로 갔다. 그 속에 청바지 차림은 딱 나 하나 뿐이어서 흥미로웠다. 안내원이 휴대폰을 건어 갔다. 대신 사진이 붙은 명찰을 목에 걸어 주었다.

출국 절차는 국제 공항에서와 똑 같았다. 내 차례가 되었다. 유난히 긴 시간이 걸려 뒷 사람에게 눈총을 받았다. 집결지에서 한번 출발할 때마다 버스가 20대씩 떠난다고 했다.

“남측, 북측이라 부릅니다. 돈은 달러로 바꿔줍니다. 북측 안내원과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 경제, 시사 문제는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안내원의 주의사항을 듣는 등 마는 등 한순간도 놓칠새라 목을 길게 빼고 밖을 내다 보았다.

“아직 남측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웃기려고 하는 안내원의 말에도 모두들 나처럼 가슴이 뛰는가 웃는 사람이 없었다. 굽이 굽이 돌아가는 높은 산고개는 아슬아슬 했지만 길이 잘 닦여져 있다. 게다가 숲이 워낙 울창하여 마치 하늘에서 내린 울타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듯 무섭지가 않았다. 통일 전망대를 지나자 비무장 지대. 천연 기념물이 많다지만 지뢰가 있어 위험하다는 설명은 북한의 현실만큼이나 괴리를 느끼게 했다.

“여기서부터 북한 땅입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허망하다 잉.”

어머니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한 마디 하신다. 아무 장애물도 없이 갑자기 북한이라니 나도 어깨에 힘이 쭉 빠졌다.

“이러코 시시헌 것을 뭘 일났다고 꼭 막고 살았다냐. 김일성이 뭇이라고 잉.”

북쪽에 도착하여 입국 절차를 밟는다. 내 차례에서 아까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렸다. 검열관이 나를 요모조모 뜯어 보기까지 한다. 나는 오히려 그의 눈 속을 들여다보았다. 난생 처음 보는 북쪽 사람, 깎아놓은 무 마냥 아무 표정 없는 얼굴 그 너머에 뭔가 애기가 있을 것만 같다. 그와 내가 긴히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말이다. 나는 그것을 읽어 내고 싶었다. 아니면 덤석 손이라도, 그것도 못 하겠다면 따뜻한 미소라도 오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왔어요. 비행기를 열 한 시간이나 타고 왔어요. 오고 싶었어요. 꼭.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건조대 위에 돌돌 굴러가는 멀치 마냥 아무말도 못하고 밀려났다. 우리가 가는 신작로 양편에 연두색 철망이 쳐 있었다. 현대층에서 빌린 땅 안으로만 행동반경이 정해져 있는 모양이었다.

혈빛은 붉은 산을 지난다. 그런 산은 초등학교 때 보았으니 6·25가 지난 지 몇 년 안 되었을 때다. 눈에 벼가 낱알 몇 개씩을 달고 꽃꽂이 서 있다. 텃밭에 배추가 포기를 못 만들고 털 빠진 병아리 마냥 오종종하게 시들어가고 있는가 하면 빈 수술대가 마른 몸을 서걱거리고 있다. 우중충한 옷을 걸친 농민들이 등 돌아 앉아 엽초를 빼는

데 앙상한 어깨가 들썩 거린다. 마을이라는 것도 있었다.

괴기 영화에서 본 듯한 고스트 타운, 바로 그렇게 보였다. 밟으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푸석한 기와 지붕에 연기 없는 회색 굴뚝, 울타리도 없이 허름한 벽을 드러낸 몸체, 주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행태그레한 골목에 짧은 가을 빛 한웅큼이 기웃거리고 있었다. 마을마다 보조병들이 지키고 서 있다. 옛 된 얼굴이다. 같은 민족인가 싶게 검은 피부에 비쩍 마른 몸, 커다란 군모에 군복을 입혔지만 허약한 몸매를 감출 수는 없었다.

온정리에 도착했다. 금강산 관광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다. 어느 방향으로 얼굴을 돌려도 천하의 명산 금강산이 보인다. 가을 해거름에 바라보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는 차라리 신비에 가까웠다.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맹물을 마셨다. 소위 글을 쓴다는 사람이 시한수 만들지 못하고 그저 감탄만 하였으니, 하루 삼천 명이 모여 든다고 한다. 과연 그럴 만 했다.

온정리엔, 북한 음식으로 유명한 온정각을 비롯해서 온천, 최신식 호텔, 샴핑몰, 공연장 그리고 식당들이 있다. 근처엔 스키장과 해수욕장도 있다. 철마다 관광객이 넘쳐 임시 숙소도 모자란단다. 심지어 전날 밤 11시에 출발하여 차에서 자고 아침에 북쪽에 도착하여 산행을 하고 다시 밤차 타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나는 해금강 호텔에 묵게 되었다. 호텔이 바다 위에 떠 있다. 크루즈에서 쓰는 대형 선박을 그대로 호텔로 사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낭만적인가. 둥근 유리창 밖에 보이는 금강산이 그림엽서 같았다. 옥외 온천에 앉아 금강산 높은 바위에 어리는 오렌지 빛 석양을 보내고 산위로 떠 오르는 달을 맞으니 신선이 따로 없다. 십칠 년간 이민 생활의 애환이 사르르 녹아 없어지고 내가 달인지 달이 나인지 알 수가 없다.



금강산 여행에선 산에 오르는 일밖에 별 할일이 없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으리. 여행 이틀 동안 꿀 자국을 따라 가는 재미 때 같은 등산객들 틈에 끼어 산에 올랐다. 팔도사투리를 듣는 재미가 남달랐다. 일만가지 형태를 가졌다는 만물상, 아찔하게 곧추선 바위 꼭대기까지 철 사다리를 놓아 등산로를 만들어 놓았다.

나는 정상에 서서 역사가 어떻든, 이념이 어떻든 천 년을 두고 함몰되는 시간을 안고 무심히 흐르는 계곡의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물 소리는 들리지만 새소리가 없다. 산에서 한번도 새소리를 듣지 못했다. 기이한 일이었다. 청명한 날씨에 단풍잎이 제 몸을 내맡기고 있다. 참 예쁘다. 자유를 숭상하는 내 삶의 여백을 잎새에 새긴다. 나를 바라 보고 있었던가. 까만 얼굴의 북측 안내원이 다가와 말을 건다.

“출습네다. 그 장갑 날 좀 주소.”

하필 나를 지목하는가. 잠시 말을 잃는다.

“……장갑 필요해서 샀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한다. 따라 온다.

“미국은 왜 샀습니까? 거기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 발을 멈춘다. 힘을 얻은 그가 재촉한다.

“장갑 나 주소.”

오기가 생겨 목소리가 약간 갈라져 나온다.

“필요해서 샀다잖아요.”

“미국 사람은 다 그렇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소. 주시오.”

한 남자가 내 장갑을 뺏다시피 해서 그에게 건네준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미국에서 온 것을.

새삼스레 내 자신을 살펴본다. 명찰이었다. 내 것은 흰색이고 다른 사람들의 것은 파란색이었다. 미운 오리 새끼일까. 어떠하든 즐거운 내 기분을 흐려 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이제 나는 하찮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 아래까지 내려 왔을 때 청바지 입은 백인 남자를 만났다. 어쩐 일일까. 고향 사람을 만난 듯 반가워서 영어로 마구 수다를 떨었다. 아내가 한국인이라 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좋은 관광 자원을 세계 만방에 개방했다라면 북측 국민들은 굶지 않았을 것을, 아쉬운 마음에 목이 따갑다. 허리 꼳꼳한 어머니는 내내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로 귀여움을 받으셨고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말과 함께 이런 명언을 남기셨다.

“워파매! 한쪽은 배터져 죽고, 한쪽은 굶어 죽는구나잉.”

돌아오는 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나는 다시 입국절차를 밟고 있었다.

“당신 북한 갔다 왔소?”

“여행으로.”

“갔소, 안 갔소.”

푸른 제복 속의 여자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그의 짧은 금발 머리가 포르르 일어섰다.

“갔소.”

“따라가시오.”

기다리고 섰던 여자 경찰이 나를 3번 창구로 데리고 갔다. 그곳엔 경찰 두 명이 더 있었다. 두 개의 커다란 내 여행 가방은 레이저를 통과하지 않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검사에 들어 갔다. 그들은 매우 심각한 표정을 하고서 심지어 화장품 뚜껑까지 다 열어 보았다. 마치 정리 안 된 자취방을 들킨 여학생 마냥 나는 조금 부끄러웠다. 속수 무책으로 공개되고 있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보니 왜 그리 웃음이 나오는지. 집에 왔기에 맘이 편해서인지 아니면 젊은 그들이 너무 진지한 얼굴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실 내 마음은 아주 느긋했고 일하는 그들의 모습도 보기 싫지 않았다. 왜 북한에 갔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노트엔 무엇을 이리 많이 적어 났는지 또 누구를 만났는지. 사실대로 대답하라고 했다.

“젊은이 나 댐에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까지 해집게 되어 미안하오. 나는 내 나라의 형편을 통탄할 뿐, 어찌해 볼 수도 없는 사람ियो. 역사의 증인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솔직히 아주 진솔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내가 작가라는 말에 그들은 내 짐을 다시 싸기 시작했다. 지퍼에 옷자락이 물리지 않게 아주 찬찬히 잘 마무리해서 카트에 올려 놔 주었다. 꼭 45분이 걸리는 입국수속이었다.

내 생애 다시 한번 그곳에 갈 수 있을지. 입국절차 없이.

공항을 빠져 나오며 나는 저 멀리 금문교 위를 날고 있는 갈매기를 찾고 있었다.

## 아카시아

박봉진

“고향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닿은 저기가 거간가,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뻗새 울겠네.”

참 많이도 목이 메였었다. 떠밀리 듯 떠나왔거나 버리듯이 떠나는 고향은 더욱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왜 이었을까?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러하지 않지만 지난 70년대 이민자들은 주중 며칠, 짧은 저녁 시간대의 한국텔레비전 방송을 놓칠 수가 없었으리. 그 방영이 끝날 무렵에 흘러나오던 코러스 ‘고향땅’을 속으로 따라 불렀으리라. 그때 목안을 따갑게 했던 그 노랫말. 낯선 땅에서 막막했던 심정과



《수필과 비평》 신인상. 채외동포문학 대상.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 역임. 한국수필진흥회(에세이문학) 미주수석이사. 《수필시대》 편집위원. 한국문협 및 국제펜클럽 회원. 저서로는 수필집 『내 마음 바다에 살아』가 있다.

불거의 향수가 뒤엉키게 했던 아카시아. 그리고 망향가인 듯, 자장가인 듯, 노곤한 잠 속에 폭 빠져들면서 노역의 여독을 풀었던 그 아카시아를 생각하면 지금도 발바닥이 저리다.

고향 마을 한 골짜기는 온통 아카시아 숲으로 덮혀있었다. 그래서 아카시아는 어디서나 흔한 식물인 줄 알았다. 뜻밖에 원산지 미주에서는 길 이름이나 아파트 이름으로 아카시아가 많이 나오지만, 정작 아카시아나무 보기는 쉽지 않다. 아카시아를 흔하게 보아 와서 그럴까? 사람들은 아카시아를 오동나무나 단풍나무 같은 품격 있는 활엽수 반열에 끼워주지 않는다. 동네 가까이나 좋은 토양의 산야에는 아카시아가 있지도 않았다. 호우 때 토사가 깎여지거나 휩쓸려졌을 산 등성이나 골짜기가 아카시아의 군락지로 되어있다.

그렇지만 아카시아는 다른 초목들이 꽃피기 다툼을 하는 상춘기의 소란은 그곳이 못 본 채 해버린다. 벚꽃이 단시일의 축제처럼 와글거렸다가 경망스럽게 낙화하는 것과는 매우새부터 다르다. 아카시아는 설핏 산야에 초여름 기운이 넘실거릴 때쯤이면 그제야 연두색 부드러운 잎사귀로 안면을 가린 채 꽃망울을 터뜨린다. 그 꽃은 작은 백합꽃처럼 흰 빛을 띠었지만 상아색에 가깝고 기품이 배어있다. 꽃은 속살이 드러나도록 만개하지 않는다. 작은 은종처럼 무게를 담고 있다. 아카시아는 한여름, 녹색 그늘로 더위 타는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가을이면 잎사귀를 황금 빛으로 물들인다. 한겨울의 삭풍 앞에선 나목으로 당당히 맞선다. 묵묵히 순리를 따르면서도 수세를 키우고 영역을 넓히는 것은 실박하고 다부지다.

아카시아는 등치와 뿌리와 잎새 그리고 꽃과 수심(樹心)의 총체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그것을 효용성에 따라서 지체별로 이용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분업 구조의 관습에 익숙해 있기 때문일 게다. 아카시아를 요긴하게 실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경계심을 갖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사람들은 우선 아카시아의 강인한 생존력과 속성(速成)의 수세(樹勢)를 장점으로 택하면서도 성성한 가시를 싫어한다. 자기 집 근처로 아카시아 뿌리가 번져오는 것을 꺼린다. 어느 생물인들 생존의 본능이 없으랴. 알고 보면 아카시아는 성장기에만 자기 방어 수단으로 가시를 매단다. 새순을 밀어 올리고 돌레로 가지를 뻗친다.

이러다보면 나무와 나무, 가지와 가지가 밀고 당기고 엇갈리며 제 잘났다는 듯이 영킨다. 게다가 옷자라는 나무는 자꾸 잘라서 뿌리와 잔가지로 밀림이 되도록 했다. 그것이 일제 강점기의 치산치수(治山治水) 정책이었고 아카시아로 사방목(沙防木) 역할을 담당시켰다. 원래 험벗었던 산언덕과 골짜기나 방축에 지금까지도 아카시아가 많은 것이 바로 그런 연유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일본을 거쳐 한반도에 들어온 아카시아를 ‘왜까시’라고 불렀나 보다. 아카시아는 띄엄띄엄 성목으로 커야 짙은 향의 꽃이 피고 녹음을 드리운다. 재질은 단단하기 때문에 가구 제품이나 첼로 침목 같은 용재로도 쓰인다.

아카시아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다. 그렇지만 옮겨 심으면 발근(發根)할 때까지는 땅내를 맡느라고 잎사귀가 노랗게 물러났는 속앓이를 한다. 오늘날은 동포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공동화 되어가던 도시에 이민 동포들이 많이 모여 산다. 아카시아의 자생의지로 타운을 형성했고 현재와 같이 성장시켰다. 그것은 아카시아가 자기 삶의 방식대로 충실한 삶을 살아낸 것이리라. 그러나 미국사람

들에게 우리말 그대로 아카시아라고 말하면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아케이시아 라고 말해야 한다. 아카시아도 성목이 되어 꽃을 피우면 여느 교목(喬木)들처럼 가시는 퇴화된다. 다만 꽃과 잎과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가시를 우듬지에 달고 있을 뿐이다.

빼꾸기가 울지 않는 이곳의 산야에도 아케이시아가 있음을 나는 뒤늦게 알았다. 몇 년 전 여행 중에 ‘씨에라네바다’ 산줄기의 눈 녹은 물이 수로(水路)를 따라 흐르고 있는 395번 하이웨이의 한 휴게소에서 쉬었던 적이 있다. 그때 어딘가에서 풍기는 꽃 향! 수로가에 즐비한 큰 나무들을 올려보자마자 마구 탄성이 나왔다. 소담스러운 꽃가지를 끌어안고 나는 한참씩 콧숨을 들이키곤 하였다. 아케이시아 꽃이 피어 있는 ‘물댄 동산’의 실상(實像)과 해후를 그렇게 즐겼다.

물론 그 아케이시아들도 그곳의 자생목은 아니다. 거기 옮겨져서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나무들이다. 숲을 보고 말을 하는 사람이면 나무도 봐야 한다. 수형을 갖춘 가지와 보이지 않는 뿌리도 봐야 한다. 서로 가까이 있어도 알맞은 거리를 유지하고 여유 있게 햇볕을 받으며 통풍과 수분 영역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카시아가 재목으로 크는 비결이다. 표피도 매끈해지며 꾸준히 성숙의 탈바꿈을 할 수 있게 될 게다. 정글 상태로 그냥 있지 않고 모두의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 아케이시아 숲이 되는 비결이 될 것이다.

사막 땅이었던 물댄 동산에 오월의 양광이 눈부시다. 아직은 더 커야 할 아카시아들이 수림 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다. 선주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주류 사회의 폄론(貶論)은 새로운 아케이시아 존재의 확인이 아닌가. 여름의 ‘인디안 섬머’ 불별더위와 겨울의 ‘산타아나’

강풍이 연례행사처럼 또 집적거릴 테지. 어쨌든 그것은 뿌리를 깊게 내리라고. 단단한 나이트 하나씩을 더해가면서 아케이시아로 거듭나라고 하는 연단일 듯도 싶다.



## 얼굴이 있었다

배희경

여자는 얼굴에 생명을 건다. 열 살쯤서부터 사춘기에 들어서면 정신을 온통 얼굴에 쏟는다. 이때의 여자들을 분류하면, 예쁘지도 않으면서 가장 미인인 줄 아는 과대망상증의 여자와, 밋상도 아닌데 자기를 아주 못났다고 생각하는 과소평가증의 여자가 있다. 그래서 대개의 여자들은 자신을 잣대에 올려놓고 가늠하려고 애쓴다.

첫째 형은 천부적으로 낙천적 기질의 소유자일 것이고, 둘째 형은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일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해 놓고, 그럼 나는 어느 형에 들고 〈싫은가〉고 생각해 본다. 당연히 첫째 부류다. 그랬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더 힘찼었겠는가.



함남 함흥 출생. 중앙대학 학부 문과 2년 수료. 《문학세계》, 《한글문학》 수필 부문 당선, 글마루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여학교 일 학년, 같은 반에 서양인형 같은 친구가 있었다. 친구가 아침에 등교하려고 집을 나서면, 남학생들이 뒤를 따르기 시작한단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교문 앞까지 오면 진땀으로 온 전신이 젖는다고 했다.

그때부터였을까. 나도 쌍꺼풀이 생겨 빠르게 예뻐 보이고 싶었던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쌍꺼풀을 만들어 보려고 손가락으로 눈두덩을 주름잡아 눌렀다. 얼마간 있으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었다. 그렇게 수십 번을 시도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드디어 포기하고 만 어릴 적 기억이 따스하게 떠오른다.

그랬는데 지금은 너 나 없이 다 쌍꺼풀이다. 내가 그렇게 바랐던 쌍꺼풀 만들기를 봉어빵 구워내듯 한다. 그래서 나는 약간의 질투와 약간의 거부감을 갖는다. 그것은 이루지 못하고 갖지 못해 생기는 청춘 고뇌의 그윽한 정서다. 그것을 잃어간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좋은 세상이 왔다고 그들에게 기뻐해 주고 있다.

가까이 지내고 있는 고향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녀는 만나기만 하면 늙어가는 얼굴 타령이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는 따위다. 이런 타령은 타령 중에서도 가장 듣기 싫은 타령이다. 어쩔 도리 없는 늙음의 과정을 좀 담담히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친구가 다녀갔다. 나와 가장 친했던 친구다. 그렇게 고왔던 친구가 거슬거슬 늙어가고 있었다. “너 피부가 나 빠졌구나” 말하고는 금방 후회했다. 그랬는데 친구는 늙는 푸념 한마디 없이 “그래서 이런 크림을 바르고 있단다”라고만 했다. 그녀는 자기를 알고 있었고 발버둥치지도 않았다.

얼굴에 관한 한 ‘마이클 잭슨’을 따를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자기가 난 원천과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이다. 그것은 비극이다. 피부를 하얗게 표백하고 피부병이라고 사실을 기만하는 자세는 우리를 슬프게까지 한다. 그러나 나는 가수로서의 평가마저 깎아 내리고 싶지는 않다. 성희롱 죄로 매장되기 직전까지 갔을 때는, 그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의 예술을 이런 식으로 매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 잭슨에 비하면, 늙은 여배우 ‘윌리스 딜러’ 같은 여자는 어떠했는가. 자기는 여덟 번이나 성형수술을 했고, 필요하다면 또 더 하겠노라고 카메라 앞에서 호탕하게 웃었다. 화장기 없이 물개같이 번들거리던 그 여자의 얼굴이 내게는 참 아름다워 보였다.

그 이유는 숨김없는 솔직함이 좋았고, 또 그 나이에 예술의 길을 향해 의욕이 넘쳐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뻐 보여야 한다는 기개가 아름다웠다. 똑같이 아름다움을 추구했으면서도 한쪽은 추해 보이고 한쪽은 아름다워 보인 이유는, 그 내면의 진실성에서 구별되지 않았을까 한다.

얼굴로 생각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내 남편의 한 친구는 서울에서 일등 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 여자는 얼굴만 고운 것이 아니었다. 재능도 많아서 고전춤도 무휘같이 추었고, 고운 말씨로 상대방을 포용하는 능력 또한 뛰어났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저 여자는 세상을 도도하게 살고 있겠군 하고. 그랬는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결혼 생활 이십여 년을 단 한순간도 남편에게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보인 적이 없단다. 연탄불에 아침밥을 지어 식구들을 먹고, 도시락도 싸야 하고, 남편 옷, 아이들 옷 챙겨야 하는 곤두박질하

는 아침에도 벌써 그녀는 화장을 하고 있었다니…… 무슨 재주로 그랬을까. 이것은 ‘카펠월드’의 요술보다 더한 요술이 아닌가.

세수를 안 해도 예뻐을 그 여자가 어째서 꼭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자기의 얼굴을 그만큼 존중히 여긴 까닭이다. 또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남편과 남의 기대에서 어긋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보존하고 싶은 바람에서 쉽지 않은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후, 사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은 그 여자도 호호 할머니가 되어 있겠지. 그런데 어떤 심경으로 늙음을 받아들였을까. 열심히 주름을 펴는 수술을 하고 늙어가는 아픔을 달래며 살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다소곳이 세월을 보내고 있을까.

아무도 젊어서 밍게 보이고 싶지 않고, 아무도 늙어서 주글주글해지고 싶지 않다. 그것이 얼굴이다. 어느 날, TV를 보니 어떤 고고학자가 이집트의 분묘에서 나온 미이라를 뒤적이며, 어느 시대의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석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며 ‘미이라에도 아름다운 얼굴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아랍인의 뚜렷한 골격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끔찍하게 생각되던 미이라에서 아름다움을 본 내 자신이 의외였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담담히 받아들인 나이가 된 것에 놀랐다. 미이라에도 분명히 얼굴이 있었다.

## 따뜻한 한끼의 밥상

성영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 일인가. 그것은 내가 살아있음의 또다른 증거다. 살아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둘러앉아 받는 밥상은 또 얼마나 큰 축복인가. 굳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서로의 시간과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누구는 영혼을 나누는 일이라고 했다지. 아무튼 단순히 씹어 삼키는 행위만은 아니다.

올 여름에 빨강머리의 미국계 친구 카산드라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운전면허를 갓 딴 열여섯 살짜리 소녀가 운전하던 차에 받쳐서 허리와 엉덩이뼈를 다친 것이다. 두 달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경남 거창 출생. 《책과 인생》수필 당선. (주)에세이플러스 운영위원, 한국문인협회,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원.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였다. 남편 아트루가 직장에 가면 그녀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침과 저녁은 그가 해결한다고 해도 점심은 친구 여럿이서 당번을 짜서 나르기로 했다.

교회에서 몇 번 눈인사만 했을 뿐, 제대로 말을 나눴던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케이와 내가 며칠 후에 점심을 가지고 갈 것인데 무슨 음식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뜻밖의 대답이 흘러나왔다. 한국음식을 좋아하고 김치도 먹는다는 것이다.

“그럼, 김치볶음밥도 먹나요?”

“네. 그런데 나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물론이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너, 외로웠구나……

목요일. 휠체어에 앉아서 우리를 맞이한 카산드라는 자신의 친구라며 검은 고양이 한 마리와 빨간 금붕어 한 마리를 소개시켜 주었다. 빛이 잘 들지 않아 대낮인데도 침침한 거실과 방을 오가며 고양이와 뽀글뽀글 거품을 뱉어내는 물고기에게 말 건네는 그녀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유케이가 카산드라와 말동무를 하는 동안, 나는 얼른 6인분 밥을 지은 전기밥솥과 넉넉히 쥔 갈비, 그리고 적당히 익은 신 김치를 잘게 다져 양념한 것들을 꺼내놓고 요리를 했다. 김치볶음밥에 계란부침을 올리고 갈비를 구워 한상 차려놓고, 몇 년 사귄 친구처럼 조잘조잘 수다를 떨어가며 점심을 먹었다. 정겨운 밥상과 사람의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한 것일까. 실타래에서 실이 풀리듯 지난 이야기들이 술술 흘러나왔다.

어린 시절 내내, 그녀와 여동생은 엄마로부터 “나는 너희들을 한번도 원한 적이 없어. 낳고 싶지 않았어”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한다. 엄마의 사랑 따위는 받아 본 적도 없었던다. 엄마와는 서로가 없는 듯 여기며 살고 있다 하니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 고통스러웠을 시간을 잘 견디며 살아온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말대신 그녀를 껴안아주며 그녀 속에 쏙뽕리로 자리잡고 있는 엄마에 대한 미운 기억이 작아지기를 바랐다. 손찌검을 자주하던 전 남편과의 두려웠던 기억도 잊고, 한 직장에서 만나 재혼한 아트루와 오래오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를 기도했다.

그날 우리는 밥 한끼 같이 먹으면서 몇 년 동안 풀어놓지 못한 이야기와 정을 나누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도 유난히 내성적이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기에 어려워하던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먼저 우리에게 발보아 공원에서 종종 만나 걷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자고 말해 까르르 웃음이 피어올랐다. 넉넉히 준비해 간 음식으로 부부의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아파트를 나서는데 가슴에 날아와 안기는 한 마디.

“나, 이렇게 따뜻한 식사 정말 오랜 만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오늘같이 안개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일하러 가기도 싫은 날에는, “갈치구이랑 김치찌개 차려왔다. 펄떡 일어나 아침 먹어라.” 하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많이 그립다.

## 아리조나주 지름길 89번

이상옥

미국 지도를 펴고, 저 서부 라스베이거스와 피닉스 아리조나주 그리고 유타주 경계쯤을 보면 남북으로 89 번 도로가 보이고 주 경계선을 조금 지나면서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89 A LT로 갈라지는 길이 나온다. 서쪽으로 갈라지는 저 지름길 89과 얽힌 몇 년 전 내 추억의 이야기를 꺼내 보겠다.

그 해 3월 둘째 주 나는 내 친형제들과 잠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휴가를 다녀왔다. 이런 휴가는 작년 3월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였다.



2006년 수필시대로 등단. 2006년 《미주중앙일보》 논픽션 입상.



내게는 형님 두 분 그리고 바로 위 누님 한 분이 계신다. 큰형님과 누님은 나와 같이 시카고 근교에 사시고 작은형님은 워싱턴 교외 지역인 알링턴 버지니아에 살고 계신다. 잘 알다시피 이 미국의 도시생활이란 것이 항상 주일 단위로 마치 톱니바퀴처럼 여유없이 짜여져 있어서 형제간이라도 같은 교회에나 다녀야 기껏 일주일에 한번쯤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 주어진 형편에 따라 잘 해야 한 달에 한번쯤도 만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물론 우리 형제들도 그동안은 서로들 제 살기에 바빠서 어찌다가 장성한 조카애들 결혼식이라든가 무슨 가족들의 큰 이벤트가 생겨야만 서로 모여 만나 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다행히 그 해에는 우리 가족에게 빅 이벤트가 생겼다. 노총각 신세였던 큰형님 맞상주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벌써 재작년이 됐지만, 가족들에게는 또다시 형제들이 다 모이는 패밀리 리유니온이 이루어진 셈이다. 여기서 나는 세월을 이겨내는 장사 없다는 옛말을 떠올리며 형님들의 변한 모습에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았구나!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자주 만나야지.’

궁리 끝에 나의 휴가 중 일 년에 한번은 우리 아이들대신 내 형제들과 여행을 가기로 하고 나의 타임 세어링 콘도를 이용한다면 차 빌리는 것만 내가 부담해도 형님들은 비행기표와 조금의 식료품 경비로 저렴해 질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플로리다주의 올란도를 다녀왔다. 그곳은 디즈니월드가 소재한 곳으로 유명한 가족 휴양지다. 차는 8명이 탈 수 있는 큼지막한 밴을 빌렸고 동양 식품점에서 장을 봐다가 한국음식을 해 먹을 수 있어서 아직까지도 우리 음식을 열심히 해 잡수시는 우리 형제분들이 모두들 만족해 하셨다.

매직킹덤, 부시가든……

형님과 누님 내외분들이 여지껏 잊고 지냈던 어린아이들처럼 웃고 떠드는 옛 모습들이 다시 보여 참 보기가 좋았고, 나도 뭔가 힘든 줄 모르는 보람 같은 걸 느끼며 ‘아하! 우리가 얼마나 더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버텨 봐야지!’ 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에는 라스베이거스에 가게 되었다. 큰형님 부부와 누님 부부, 그리고 우리 부부는 여기 시카고 오헤어 에어포트에서 출발했고 작은형님 부부는 워싱턴 디씨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출발했다. 우리 비행기가 먼저 도착하여 한 시간쯤 뒤에 도착하시는 작은형님을 공항 라비에서 기다렸다. 조금 후 작은형님 부부가 도착했다. 우리들도 미국 사람들처럼 일 년 만의 해후에 얼싸안고 기뻐했다.

일 년 만에 뵈는 작은형님은 또 작년보다도 더 변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안스러웠는데 작은아주머니는 종합 진단을 받으신 결과가 좀 이상해서 정밀검사를 휴가 뒤로 미루어 놓고 오셨다 하여 모두들 마음이 무거워졌었다.

환락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는 3월 중순이었지만 낮 기온이 대략 섭씨 24도 정도나 되어 추운 시카고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환상적으로 좋았고 밤이면 사막이라 두터운 자켓을 입어야 할 정도로 추웠어도 우리들은 잠시 모든 걸 잊어버리고 행복에 푹 잠겨 지낼 수 있었다. 레드락 벨리(붉은 바위 골짜기)도 돌아보고 그 다음날은 저 유명한 그랜드 캐년을 가기로 했다. 자그만치 600마일 정도를 하루 사이에 돌아보자면 한마디로 강행군을 해야 될 것 같았다. 아침 일찍 출발해도 아마 밤 열한 시나 열두 시쯤에나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다.

난 형님들에게 아침 여섯 시에 출발할 테니까 일찍 주무시라 말씀드리고 먼저 얼른 침대로 기어 들어갔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다들 잠들을 안 잤는지 모두들 준비를 다하고는 내가 깨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다. 난 정말 미안하여 핏죽 웃어버리고는 곧 바로 출발했다. 아침을 맥도날드에서 사들고 차안에서 먹으며 한적한 사막 길을 총알같이 달려나갔다. 우리는 가는 길에 있는 후버댐에 들려 잠시 주마간산격으로 사진만 찍고는 다시 그랜드 캐년을 향해 출발했다.

지루한 아리조나 사막 길을 시속 80마일에서 85마일(시속 75마일 지역)로 달려 4시간 30분 정도를 운전하니까 그랜드 캐년 국립 공원에 도착했다. 그랜드 캐년! 저 웅장한 창조주의 작품을 내 재주로는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한마디로 가 봐야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만 말해 두겠다.

벌써 오후 3시30분이나 되어 해가 이미 저 서쪽하늘 중간 쯤에 기울어 있었다.

— 다음 주유소 앞으로 54마일 가야 있음. — 하는 표시를 보고 난 바로 그 팻말이 세워져 있는 주유소로 들어갔다.

나는 “변소 가실 분들 또 뭐 필요하신 분, 여기서 다 해결하세요.”라고 말하며 타고 온 밴 기름 탱크에 기름을 가득 채운 후 지도를 들여다봤다. 여기는 Cedar Ridge 남방이었다.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길은 아리조나 주 89번 도로 북쪽으로 돌아가는 89번과 지름길 ALT 89번이 있는데 난 모험을 해 보기로 결심하고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들께 안내 방송을 했다. 지름길 89번으로 가겠다고!

주유소를 떠나 40분쯤을 가니까 89번 지름길 사인이 나왔다. 난 심

호흡을 한번하고는 지체 없이 핸들을 그 쪽으로 꺾었다. 투웨이 트래픽 숄더(갓길)도 없는 길에 제한 속도 시속 65마일로 한30분 갈 동안은 가끔 집과 목장이 마치 그림같이 펼쳐져 있었다. 가끔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너나 없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반가워했다. 한 시간쯤 더 가서 유타주 경계를 들어선 후에는 와우! 가도가도 끝없는 길에 가는 차가 나 혼자, 아니 우리 밴 뿐이다. 석양에 물든 붉은 계곡. 밴에 탄 승객 여러분들은 모두들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여 여기저기서 탄성도 지르며 왁자지껄 떠들더니 해가 지고 캄캄해지자 모두들 조용히 말들은 않고 내 눈치만 보는 느낌이 들어 헛꽃 뒤를 쳐다 보니까 모두들 표정이 굳어 있고 불안한 모습들이다.

“걱정 마세요. 형님들! 내가 틀림없이 오늘밤도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헤드릴 테니까요.”

캄캄한? 밤! 사방 어느 곳에서도 불빛 하나 안 보이는 곳. 앞에도 또 뒤에도 지나가는 차조차 볼 수 없고 하늘에만 유난히 쏟아지듯 반짝이는 별들뿐. 세상에 그렇게 반짝이는 별들은 생전 처음 보았다. 잠시 지나온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중간지점 Jacob lake까지는 아직도 세 시간 정도를 더 가야 할 것 같았다.

‘하아?! 세상에 이런 길도 다 있구나. 누가 옆에서 잡아가도 전혀 알 수 없고 썰폰조차도 먹통이 돼버리는 곳이네.’

부부가 같이 왔지만 자식들 떠나 이렇게 외로운 길을 가다보니 모두들 불안했는지 차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나는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내 마음이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말할 수 없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다.그리고는 잠시 그분의 따뜻한 품에 안겨 생각에 잠겨 봤다.

‘이 때묻지 않은 대자연은 창조주이신 당신이 마련하신 우리 인간

들의 본향입니까? 모든 두려움도 없어지고, 평화라는 건 이렇게 당신의 품안에서만 느낄 있는 건가요? 더러운 탐욕도, 시기도, 질투도, 모함도, 모두 우리끼리 있을 때만 힘을 쓰고 말이죠. 그렇네요! 역시 그런 건 당신 앞에선 전혀 맥을 못 चु는군요! 그런 건 우리 인간들이 당신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만이 집 안에 어른이 안 계실 때 우리끼리 장난 치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네요!’

나는 마치 성지 순례를 온 기분으로 7000피트가 넘는 산을 넘고 다시 눈이 온 구불구불한 산길도 내려가며 저 멀리 인간들이 사는 곳, 제콥스 레이크가 가물가물 손에 잡힐 듯이 은은한 빛을 반짝거리리는 곳을 지나고 있었다.

인간들이 사는 곳이 가까워 오니까 모두들 갑자기 보고 싶은 얼굴들이 그리워지는 모양인지 이제는 차안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도 사랑하는 딸아이와 고집통이 아들녀석의 환하게 웃는 모습과 장난스러운 표정을 떠올리고는 미소를 머금었다. 이제 차안에서도 소란스러운 이야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난 또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됐다. 라스베이거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락의 도시다. 잠시 골치 아픈 세상사를 잊고 흥분과 스릴에 빠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으로 휴가를 왔다. 그리고 우리 형님 내외분들이랑 누님 내외분이 슬랏머신 앞에서 희희낙낙 하시는 모습! 그건 내 추억 속에 오래 간직하려 사진을 찍지 않았다.

추억이란 첫 여인과의 아릿한 것. 아이들하고 그림고도 달콤한 것. 친구들하고 구수하고 텁텁한 것까지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나처럼 황혼을 맞이해 가는 형님 내외분들과 누님 내외분을 모시고 그분

들 틈에서 잠시 막내 노릇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새삼스럽지만 나 역시도 그 언젠가는 그렇게 황혼을 맞이할 테니까.

## 갈퀴나무야

정순옥

어느 가을 날, 나는 갈퀴나무를 사랑하는 한 아름다운 가을여자를 만났다. 갈색을 띤 소나무, 잣나무 이파리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산장 길목에서였다. 간밤에 내린 가을비로 인해 물기에 젖은 이파리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더욱 더 아름답고 선명한 낙엽 색깔을 내고 있었다. 그 여자는 상념에 젖은 듯 고개를 떨구고서 두 발로 낙엽들을 긁어 모으고 있었다. 책가방 안에 가득 들어갈 만큼 모아지자, 그 여자는 내 시선을 의식했던지, 무리중에 끼어 있는 내 걸으로 다가와 말을 꺼냈다.

“갈퀴나무를 아세요?”



1978년 도미. 1989년 《중앙일보》 이민수기공모 우수상 수상. 2003년 광야 신인문학상 수필 당선.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내가 채 대답을 하기도 전에, 곁에 있는 젊은이가 재빠르게 묻는다.

“갈퀴나무가 뭐예요?”

“내 사랑 갈퀴나무는 밥이죠?”

그 여자는 긴 여운을 남기면서 나직이 대답을 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나는 갈퀴나무에 얹힌 그녀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선하고 사랑 많은 사람이 되라고 ‘선애’라는 이름을, 병원비로 가난만을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어 주셨단다.

“갈퀴나무야, 갈퀴나무야?, 너는 내 마음을 알지? 아픈 엄마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중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내 마음을 너는 알 거야.”

선애는 솔잎이랑 떡갈나무, 금잔디 등을 갈퀴로 긁어 모은 갈퀴나무를, 여러 겹의 새끼줄로 묶으면서 혼자서 중얼거렸다. 심심산골로 나무를 하러 가는 동네 나뭇꾼들을 따라갈 수 없는 어린 선애는, 엄마가 밤새도록 쿨룩거리다가 잠이 든 틈을 타서, 아침 일찍부터 가까운 야산에서 갈퀴나무를 했다. 선애는 아빠가 남긴 사랑의 흔적을 안고서 몸살을 하는 엄마를 도울 생각을 한 것이다. 갈퀴나무를 빨감으로 쓸 뿐만 아니라, 팔기도 하고 곡식으로 물물교환을 해서 어머니와 먹고 살아가는 선애에겐, 갈퀴나무는 곧 밥이었다.

선애는 새끼줄로 잘 묶은 갈퀴나무를 보고서야, 비로소 온 몸에 흐르는 땀과, 배가 몹시 고풍을 느꼈다. 선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구수한 갈잎 냄새가 나는 산 속에서, 새까맣게 잘 익은 산딸기며, 빨알잘게 익은 맹감이 눈에 띄었다. 선애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싱싱한 산나무 열매들을 따먹고는, 피곤함과 산의 상큼한 냄새에 취해서



갈퀴나무 곁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가라’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선애는 눈을 떴다. 낫설은 아저씨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앞에 보였다. 하이얀 옷을 입고서 길다란 턱수염을 두 손으로 쓰다듬고 있는 사람이 보여, 비몽사몽간에 말로만 듣던 산신령이 나타났나 보다고 선애는 생각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산(山) 주인이 산지기를 데리고 자기 산들을 둘러보던 중, 갈퀴나무 뭉치 곁에서 자고 있는 선애를 본 것이다. 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잠 속에서도 ‘가고싶다’는 말이 무의식 중에 입밖으로 튀어 나온 것을, 이때 산주인이 듣게 된 것이다. 그 일로 인해서, 선애는 산 주인의 은총을 받아, 원하는 학교에까지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희망과 행복을 준 산주인은, 한 산지를 주고 싶어 할 만큼 선애를 총애 했다. 그러나, 외국 사람을 사랑하게 된 선애에게, 유교사상이 짙은 산주인은 더 이상 얼굴을 보여 주지 않았다. 외국 사람을 사랑하기엔, 너무 이른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나의 죄가 크다고 자탄하시는 어머니의 음성에 휩싸인 채, 무언가에 등떠밀리어 선애는 바다를 건너야만 했다.

결혼 후, 그 여자는 가난과는 다른 풍부한 세계가 좋았다. 그렇지만, 언제나 배고픔과 진학하고 싶은 마음으로 ‘갈퀴나무야’를 불렀던 산골소녀 시절을 잊지 못했다. 때때로 음식 앞에 서면, 산골 생각이 더욱 더 났다. 특히 뷔페식당에서, 접시에 담은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버려야 할 때는 스스로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짐을 느끼곤 한다.

“지금도 산골에서는 갈퀴나무를 부르면서 나처럼 소원을 말하는 소녀가 있을 것만 같아요. 나를 도와 준 산주인처럼 할 수는 없지만, 맛있는 빵이라도 주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산주인도 어머니도 하늘나라에서 흐뭇해 하실 텐데…….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게 하는, 사랑하는 갈퀴나무 덕분에 산주인의 커다란 은총으로 공부를 했고, 어머니의 눈물어린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 온 나지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면서 살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껴 부끄럽다.” 면서 손수건으로 젖은 눈가를 닦는 가을여자가, 나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다.

문득, 나는 그 가을여자가 생각 나, 낙엽이 쌓인 언덕배기에서 내 손가락을 갈퀴 삼아 갈퀴나무를 해서, 한아름 들고 왔다.

뒷뜰 정원에 있는 갈퀴나무 속에서, ‘갈퀴나무야—’를 부르는 가녀린 산골소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본다. 아~니 어찌면, 아름다운 가을여자를 생각해 하는, 계절이 깊어 가는 소리일지도 모르겠다.

## 서른 세 개의 추모석과 서른 두 개의 하얀 풍선

지희선

따가운 햇살 속에 밤톨처럼 익어가던 가을도 낙엽 속에 이울고, 성긴 눈발 날리듯 여기저기서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다. 어느새 겨울이 오고 또 한 해가 가는 길목에 섰음인가. 몸도 마음도 스산해진다. 한 필의 피륙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던 '오늘'이란 하루. 다시 펴보는 두루마리 위엔 노란 유채꽃 그림도 있고 노파의 은발 같은 억새꽃 그림도 있다. 누군들 그러하지 않으랴. 때론 울고 때론 미소로 눈물을 말리며 저마다 올 한 해를 지냈겠지. 돌아보면, 시간은 참 잔인했고 또 한편씩 너그러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상처를 준 것도 시간이요 그 상처를 치유해준 것도 시간이었다. 대나무의 마디처럼 시간은 우리



1995년 《문학세계》 수필 신인상. 1997년 《수필과 비평》 수필 신인상. 1999년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에 수필 당선. 1999년 《현대시조》 신인상. 2007 《에세이 문학》 천료. 재미수필가협회, 미주시조협회 회원.

의 키를 한 켄 더 키워주려고 연말이라는 마침표 하나를 마련해 두었나 보다.

올해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사건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다. 그 중에서도 4월 16일 아침에 일어났던 버지니아텍의 총기난사 사건은 가장 충격적이었다. 지성과 젊음의 상징인 상아탑에서 그렇게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다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으리라. 가해자가 한국애라서 그런 것일까. '끔찍했던' 사건이지만 나에게는 지금도 '가슴 아픈' 사건으로 남아 있다. 이성적이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난다.

사건 당일 저녁 뉴스만 하더라도 가해자가 중국계라 해서 그런지, 참 안됐다는 마음과 함께 대형 총기 사건쯤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나는 아연 실색하고 말았다. “에이, 나쁜 놈의 새끼, 한국놈이래!” 하고 남편이 분통을 터뜨리며 신문지를 탁자 위에 팽개쳤다. “어머나! 한국애래? 어머, 어떡해……” 신문을 집어 들기도 전에 눈물부터 피잉 돌았다. 기사를 읽어가면서도 죽은 애들보다는 이상하게도 죽인 ‘나쁜 놈’이 더 불쌍하게 생각됐다. 한창 젊음을 구가하며 인생 찬가를 부르고 있어야 할 아이가 무엇에 이토록 분노를 느껴 총질까지 하고 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말이 없고, 친구가 없었다는 아이의 외로움이 내 뱃속 깊이 스며들어 뼈죽뼈죽 눈물이 나왔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고 역정을 냈다. 무고하게 죽은 놈들이 불쌍하지, 그 놈이 왜 불쌍하냐고.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당연한 말도 때로는 섭하게 들릴 때가 있다.

범죄가 나쁘다는 것은 나도 안다. 서른 두 명이나 죽인 잔인한 범죄에 무슨 변명이 있으며 당위성이 있을 것인가. 조승희가 살아있으면 나도 크게 꾸짖어 주고 싶다. 앞으로 희망이 창창하게 젊은 놈이 외로움도 참고 분노도 삭일 줄 알아야지 총질은 무슨 총질이냐고. 하

지만, 그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의 외로움과 아팠던 마음이 자꾸 읽혀 마음이 찢해진다. 게다가 내 자식하고 똑같이 생긴 ‘동안’의 한국 아이가 아닌가. 남편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이유도, ‘왜 하필이면 한국놈이야!’ 하는 안타까움이 깔려있어서일 게다.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어떤 사람은 조승희를 동정했고, 어떤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욕을 했다. 조승희 개인의 문제라고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보복성 범죄가 뒤따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실제로 동부에서는 많은 애들이 언어의 폭력과 얼굴에 침을 맞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숙한 미국 시민들은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사과하는 것을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했다.

사건 이후, 버지니아 대학 본관인 버러스 홀 앞엔 서른 세 개의 추모석이 놓여졌다. 서른 두 명의 희생자와 조승희까지 포함된 추모석 숫자였다. “과연, 미국은 미국이구나!”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아픔과 분노를 뒤로한 채 죽은 영혼 앞에 겸손한 그들을 보고 또 한번 코끝이 찡해왔다.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일등 시민이란 생각이 들었다. 서른 세 개의 추모석.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었다. 사건 일주일 뒤 23일에 열렸던 추도식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조승희의 추모석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치워지고, 추도 타종도 서른 두 번만 울렸다. 학교 상징색인 적갈색과 오렌지색 풍선 1000여 개가 하늘로 올라갈 때, 흰색의 추모 풍선도 오직 서른 두 개만 떠 올랐다. 대신 그의 추모석이 놓였던 자리에는 “조, 너는 우리를 과소 평가했다. 너는 우리의 가슴을 찢었지만 정신을 깨뜨리진 못했고 결국 국 사랑이 승리할 것”이라는 쪽지가 놓여졌다. 죽어서도 소외되어야

만 했던 한 개의 추모석과 한 개의 하얀 풍선. 무거워서 더 놓지 못한 것도 아니요, 돈이 비싸서 더 살 수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허허 웃고 용서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나 보다. 그날 이후, 조승희란 이름도 캠퍼스 내에서는 금기어가 되어버렸다. 그의 온전한 이름은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총잡이(Shooter)’ 혹은 ‘그 놈(The Guy)’이나 그저 ‘조(Cho)’라고 불린다고 했다. 그나마 그 이름조차 거론하기를 꺼린다고 한다. 이름이 부정된다는 것은 존재의 부정이다. 모두가 잊고 싶어 하고 잊어야 될 이름, ‘조, 승, 희’. 이제는 날자로 흩어져 허공 중에 떠도는 이름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 한국 아이들만은 그를 기억하고 욕된 이름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었나 보다.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우정 어린 노력이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더욱 조신한 행동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물론, 죽은 친구들이 생전에 했던 자원 봉사자 일까지 인터넷으로 찾아내 릴레이식으로 대신해 주고 있다고 한다. 조승희를 대신해서 빗값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다. 어찌 우리 아이뿐이겠는가. 아직도 싱싱한 풋 사과 같은 아이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아름답고 선하다. 대학 신문 사설을 통해 조승희 부모님께도 다른 희생자 가족처럼 18만불의 위로금을 나눠주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승희 부모님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야말로 다른 희생자 부모들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을 거라는 배려에서였다. 용서만 해줘도 고마운데 위로금이라니, 어른들 생각으론 어렵도 없는 얘기다. 조승희의 빈 추모석 위에 놓였던 분노의 쪽지도 지금은 사랑의 쪽지로 바뀌었다. “우리는 너를 용서한다. 너는 틀림없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했을 거야.” 그도 이제야 친구들의 우정을 알고 저 천국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리라.

얼마 전에 버지니아 대학에서는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Lost in

time)’란 타이틀로 ‘아시안 축제’가 열렸다. 위축된 마음을 뛰어넘어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 싶어서였단다. 우리 한국 아이들은 시험 기간인데도 열심히 연습해서 신명나는 사물놀이 한판을 올렸다. 잊어버리고 털어내기 위해서 사물놀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출연자와 관객이 소리에 휘감겨 한판 축제를 벌였을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어깨가 들쭉여졌다. 한편으론 그 신명나는 사물놀이가 꼭 조승희와 희생자를 위한 진혼제 같은 생각이 들어 흐뭇했다. 그날, 혼신의 힘으로 사물놀이를 공연한 우리 아이들 이름은 김율이, 이윤경, 황동민, 나석호라고 전한다. 굳이 아이들 이름을 다시 한 번 불러주고 싶은 것은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기억해주고 싶어서이다. 쌀에 겨같이 눈에 거슬려도 ‘그’라는 대명사 대신 계속 ‘조승희’란 풀네임으로 글을 써내려간 것도 그런 마음에서였다.

이제 꾸중을 들어야 할 조승희는 가고 없다. 억울하게 죽은 아이도 가고 없고 한때는 조승희를 괴롭혔을 아이들도 가고 없다. 월탄 선생의 말처럼 지금은 ‘악한 이나 선한 이나 다 자고 가는 저 구름’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건도 역사 속에 묻힐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세월의 더께 속에 딱지가 앉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잔인하지만, 또 너그럽다고 하지 않는가. 한 해의 끝이 있고 새 날의 시작이 있음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라는 신의 배려인지도 모른다.

사랑과 용서의 성자, 아기 예수가 오신다고 캐롤이 울려 퍼진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엔 이미 서른 세 개의 추모석이 놓여 있고, 서른 세 개의 하얀 풍선이 하늘 높이 날고 있다.

## 타오르는 불꽃(Flaring Flames)

최미자

우리 한국의 옛 조상들은 인간적이고 의미 있는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꿀 같은 주말을 보내고 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전화를 받는다. 인근 산에 불이 났으니 어서 대피하라는 전갈이다. 밖을 내다보니 멀리 성난 파도처럼 크고 작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엉겁결에 중요한 서류 가방을 들고 피신했다가 몇 시간 후에 돌아와 보니 살던 집은 삼시간 만에 양상한 잿더미로 변해 있더라. 마치 전쟁터의 폐허처럼. 이렇게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화재의 참상 소식을 듣고서 자연의 재앙에 나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당사자들(evacuee)의 정신적 고



광주광역시 출생. 경북대학교 사범대학(화학)졸업. 《현대문예》와 《수필시대》 수필작품 신인상. 미주한국문인협회, 재미수필문학가 협회 회원. 저서 수필집 『레몬향기처럼』.



통을 어찌 헤아리라.

21일 일요일 낮, 동네 근처 식당에 들어서는데 예사롭지 않게 매우 강한 바람이 나의 등을 때렸다. 가을인데도 여름처럼 꽤나 더웠다. 월요일 아침엔, 15번 고속도로가 피난민들로 북새통이라는 뉴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또 어디에서 산 불이 아니면 지진이?” 대부분 직장과 학교가 문을 닫았으니 집에 머무르란다. 우리 집 안 마당에 나가 하늘을 쳐다보니 북쪽 하늘이 뿌옇고 불그스레한 회색빛이다. 평소에 단맛이 날 정도로 신선했던 공기와 달리 내 코를 톡 쏜다. 곧 바로 나의 목구멍이 칼칼하며 아파왔다. 집 안에 들어 와 창문을 닫고 소금물로 목을 행군 후 텔레비전을 켰다.

영화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불길이 여기저기서 활활 이글거리고 있었다. 고급 주택들이 팍팍 쓰러지는 장면은 소름이 끼쳤다. 2003년에도 화마로 이천오백여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날까? 언젠가 케네디가의 후손과 가족들이 사고와 병으로 단명하게 죽어가니 ‘아직도 케네디가의 저주는 끝나지 않았는가!’라는 영어신문 기사의 제목을 읽은 적이 있었다. 케네디의 중조할아버지가 밀주를 만들어 팔아서 자식을 키운 업보일 것이라며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커트리나’ 허리케인으로 백만이 넘는 이재민들이 집을 잃고 고통을 헤맬 때도 사람들은 말했다. “강대국 미국을 향한 저주는 아직도 진행 중인가? ……”라고. 사실 이라크 전쟁으로 이슬처럼 사라지는 죄 없는 원혼들의 비명 소리를 우린 날마다 듣고 있지 않는가.

남가주 지역은 해마다 10월이면 2월까지 동북쪽의 모하비 사막에서 따뜻한 샌타아나 바람이 불어와 온화한 겨울을 지낸다. 그동안 비가 내리며 일년 동안 목마른 대지를 흠뻑 적셔주곤 했다.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비는 오지 않고 건조하여 산등성이의 수풀은 불쏘시개처럼 바짝 말라 있다. 그래서 샌타아나(strong Santa Ana wind) 바람이 불어와 무서운 불씨가 되면 어느 동네를 확 삼켜버릴지 이젠 아무도 모른다.

이십 여 군데서 일어난 화재 원인은 용접공이 날린 불씨와 전기누전이었다. 미친놈이 불을 지폈다는 보고도 들어와 조사 중이다. 불길은 40~70마일로 부는 샌타아나 강풍을 타며 내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샌디에이고는 닷새 동안 지옥이었다. 큰 시가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거대한 불길을 진화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2003년 소방국장이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조금도 늘지 않았으며 불평하는 신문 기사를 나는 읽었다. 이틀이 지나니 타지에서 소방대원들이 원정을 왔고 2003년 화재의 10배가 넘는 약 53만 명이 지금 대피중이다.

이사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다는데 모두 타버린 집, 결혼 41주년을 기념하는 날에 화마를 만난 노부부, 공교롭게도 “아, 저기 저의 집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생방송을 중계하던 아나운서 래리 힘멜의 투철한 직업정신도 화제가 되었다. 그런가하면 건넌집은 탔지만 기적적으로 화마를 피한 행운의 몇 주택도 있었다. 11살 아들과 잿더미가 된 집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가족이 살아서 천만다행이고 집은 다시 지으면 된다고 인터뷰에 응했다. 25년 살아 온 정든 집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희생자들의 멍한 표정에 나도

눈물이 나왔다. 정확한 피해의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인들이 제법 살고 있다는 랜초버나드 부촌도 간밤에 거의 잿더미로 변했다.

걱정이 되어 가깝게 지내 온 지인들에게 여기저기 안부를 물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재영이네 가족에게 우리 집으로 오라고 권유했지만 자주 들르는 세리토스의 선배 맥으로 가겠다고. 아름다운 부촌 칼스 베드에서 추억이 담겼던 집을 화마로 잃어버렸던 이사장님 네도 안전한지 전화해보았다. “한번 당해 본 경험이 이미 있어서, 슬슬 집을 싸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수 십 년 동안 샌디에 이고의 진정한 한인사회를 위해 자금을 대고 소리 없이 봉사했던 분이였다. 두 번째 이사 간 그의 집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빌며 나는 수 화기를 내려놓았다.

2003년에는 10일 간이나 계속되던 산불이 우리 동네 뒷산 근처까지 왔다. 당시 우리 집 뜰의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듯 회색재가 날렸다. 20년 살아오며 인근 산에 일어난 세 번의 산불을 목격했지만 큰 길이 많아서인지 출동한 소방관들이 곧 바로 불을 끄곤 했다. 겁나는 지진이 언제 찾아와 땅을 갈라놓을지도 모르는데, 이젠 불귀신이 더욱 무서워지는 요즈음이다. 일 년 열두 달 거의 푸른 하늘이었는데 지금은 회색빛 연기 속에 갇혀있다. 기후가 좋아서 사람들은 서부로 은퇴하여 사는 게 꿈이라는데, 과연 아직도 살기 좋은 땅일까?

셋째 날엔 2만 갤런의 물탱크를 들고 창공을 나른다는 문어 입 모양의 파이프를 장치한 소방용 헬기가 바닷물을 뽑아 나르는 위력에 박수를 보냈다. 밤마다 “샌타아나 바람님이여, 그만 잠 좀 자소서.”라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어갔다. 넷째 날엔 변덕스러운(Eratic) 바

람이 잠잠해진 덕분인지 진화가 빨라졌다. 화재 현장의 주변 온도를 낮추는 약품을 뿌리고 온갖 소방용 헬기가 등장하더니, 재영이네 가족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 왔다는 전화벨이 울렸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삼면이 불길에 싸였고 지금도 남쪽 하무엘 지역(Deerhorn Valley Road)은 타고 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머무는 켈컴체육관과 텔마 승마경기장의 대피소엔 구호품이 넘쳐나니 이제 현금으로 도와 달란다. 내일은 부시대통령이 샌디에이고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학생 때 친정아버지의 화장터 화구 안에서 처음으로 활활 타는 무서운 불꽃을 보았다. 예상된 죽음이었지만 그 때 본 불꽃은 두고두고 충격이었다. 평소 집안의 물건에 애착이 많았던 아버지의 얼굴이 교차했기 때문이다. 불자였기에 어머니는 남편을 깨끗하게 보내드리고 싶다며 화장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 산지기가 지키던 선산이 있다지만 후손들이 외국에 나가 살고 돌보지 못하니 지혜로운 어머니의 결단이었다. 화장터의 불꽃으로 나는 무소유의 삶을 조금씩 배워나갔다. 상황은 다르지만 날마다 이웃동네를 삼켜버리는 성난 불꽃 속에서 새삼스레 내가 살아 온 삶을 되돌아본다.

운이 좋아 우린 화마를 당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불행을 통해서 이 순간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중한가를. 좀 가지고 있을 때 나눔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저 불길처럼 늘 탐심으로 이끌거리지 않는가. 고마운 물, 공기와 자연을 더 많이 아끼며 진정으로 사랑해야겠다. 사람들은 미리 대피했지만 숲 속에 살던 새들, 다람쥐, 들 토끼와 다른 짐승들은 뜨거운 비명을 지르며 얼마나 아파했을까? 그런 불쌍한 미물가족들을 위하여 나는 작은 촛불을 밝혀 기도를 드려야겠다.